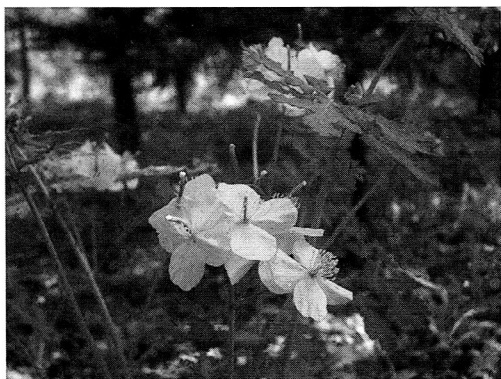


들풀이야기 - 애기똥풀



왕고들빼기를 흔히 ‘새똥’이라고 부릅니다. 줄기를 자르면 하얀 새똥과 같은 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기똥풀의 이름이 붙여진 것도 줄기를 자르면 진노란 색깔의 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치 애기똥의 색깔과 같기 때문입니다.

애기똥풀을 젖풀, 씨아똥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애기똥풀의 학명은 ‘Chelidonium’인데 희랍어 ‘chelidon’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희랍어로 제비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제비 새끼가 이물질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을 어미가 애기똥풀의 줄기를 꺾어 거기에서 나오는 유액을 새끼의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한데서 제비의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애기똥풀의 꽃은 노란색인데 배추꽃을 많이 닮아있습니다. 무리지어 피어있으면 배추밭의 풍경이나 유채꽃밭의 풍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꽃은 순한 성질의 채소를 닮았는데 애기똥풀의 속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귀비과의 독성을 지닌 식물이기 때문이죠. 애기똥풀의 노란즙액에는 알칼로이드라는 독한 성분이 들어있어 함부로 섭취하면 안되는 들풀임을 알아야하겠습니다. 십 여년 전 마을 주민

한 분이 속병을 다스린다고 애기똥풀을 자주 이용하셨는데, 그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양약이든 민간요법이든 약물의 오남용은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아야하겠습니다.

독성이 있다고 해서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궤양, 간장, 진통, 위암, 진해 등에 효험이 있는데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용법에도 전문의의 의견을 들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암과 위궤양: 애기똥풀 온포기말린 것을 하루에 2-6g 달여 먹는다.

* 간염: 애기똥풀 온포기 1.5-3g을 (1회분) 생즙내어 1일 2-3회씩 끓여 먹는다.

* 신경쇠약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애기똥풀 온포기 20-30g을 물에 달여 밤에 자기 전에 먹는다.

* 옷 오른 데, 피부가 가려운 데: 애기똥풀 생즙 5ml, 박하 생즙 9ml를 90% 알코올 3ml에 섞어서 국소에 바른다.

* 무좀: 애기똥풀(또는 마른 애기똥풀) 100g에 끓인 물 1리터를 붓고 20분 정도 우려낸다. 다음 이 애기똥풀액을 대야에 붓고 더운물을 타서 15-20분 동안 놓아둔다. 이 물로 무좀이 생긴 발을 10번 정도 찜질하면 낫는다.

* 뱀이나 벌레에 물린데, 사마귀: 애기똥풀의 생즙을 내어 바른다. 애기똥풀을 너무 많이 쓰면 부작용으로 경련, 점막의 염증, 요혈, 변혈, 눈동자의 수축, 마비, 혼수상태, 호흡마비가 오는데 이때에는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양귀비과인 애기똥풀은 전 세계에 2종이며 우리나라에는 1개의 변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해살이풀로 전국에 분포하며 약간 그늘지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5월에서 8월 사이에 꽃이 피는 전형적인 여름꽃입니다. 꽃이 지고나면 가느다란 기둥 모양의 열매가 맺힙니

다. 다 자라면 사람 무릎 정도의 높이 30 - 50cm내외가 됩니다.

애기똥풀은 제가 일하는 밭에서는 성가신 잡초에 불과합니다. 손으로 뽑을 때 노란액이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꽤 귀찮은 풀입니다. 크게 자란 것은 뿌리가 잘 뽑히지 않아 제거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애기똥풀은 토종으로 그 가치가 아직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풀 중의 하나입니다.

약초연구가 전동명 씨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려 있는 애기똥풀을 잡초로 알고 귀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조물주는 놀라운 치유력을 백굴채(白屈菜, 생약명)에 넣어주셨다. 냄새나고 꺾으면 똥빛갈이 난다고 하여 천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애기똥풀의 신비를 배우고 유익을 얻고 고마움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느 집 화단 앞을 지나다가 제초제에 쓰러져있는 애기똥풀을 보았습니다. 그 옆으로는 장미가 한껏 우아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종류는 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애기똥풀은 전 세계에 단 두종이라네요. 어느 것이 회소가치가 있을까요?

전 장미를 좋아합니다. 그 화려함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여름꽃이며 토종인 애기똥풀이 그냥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에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애기똥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매력이 있는 들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노란 꽃의 색깔, 마디마디 절도 있게 꺾여져 가지를 뺏는 모습과 그 어떤 식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꽃의 색깔을 닮은 노란즙액, 다섯 갈래로 갈라진 열무 모양과 비슷한 잎 등은 애기똥풀만의 고유한 멋이 아니겠습니까? 길 주변과 들에 흔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들풀로써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밭에서 일하다 애기똥풀의 노란꽃을 꺾어보았습니다. 손에는 노란액이 묻었습니다만 꽃의 노란빛갈이 얼마나 짙은지 잠시 그 색의 아름다움에 젖어 나무에 걸린 사랑과 희망의 노란 손수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